



영상언어로 다시 태어난 프루스트의 대작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다섯번째 권 『스완네 집 쪽으로-스완의 사랑Ⅱ』 출간

프루스트의 치밀한 심리 묘사와 스테판 외에의 고증학적 풍경 묘사,
두 예술가의 펜 끝이 재현해내는 벨에포크의
파리를 무대로 한 스완의 사랑, 그기나진 미몽의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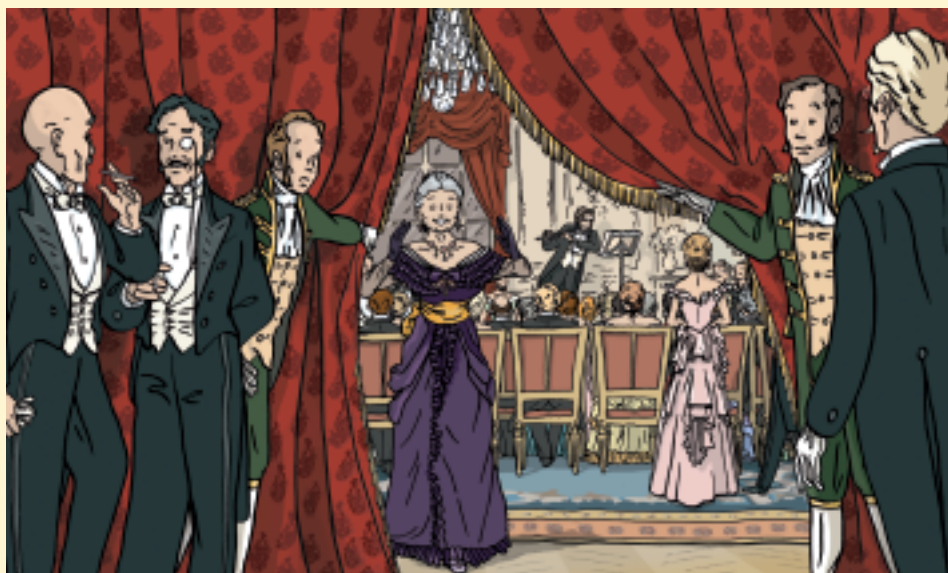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과거로의 여행

‘마르셀의 회상’ 부터 ‘스완의 사랑’ 까지

대 하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이루는 일곱 권인 「스완 네 집 쪽으로」 「활짝 핀 아가씨들의 그늘에서」 「게르망트 쪽」 「소돔과 고모라」 「간헐 여인」 「사라진 알베르틴」 「되찾은 때」는 1913년에서부터 1927년까지 출간되었고, 그 중 마지막 세 권은 1922년 마르셀 프루스트의 사망 이후에 출간되었다.

이 소설의 첫째 권은 ‘콩브레’ ‘스완의 사랑’ ‘고장의 이름: 이름’ 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일인칭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지만, 독립적으로 읽히고 또 가장 널리 읽히는 부분이기도 한 ‘스완의 사랑’ 은 예외적으로 삼인칭 시점에서 서술되는 부분이다. 사실상 ‘스완의 사랑’ 은 화자(話者)가 태어나기 전인 1880년대의 파리를 무대로 한 스완과 오데트의 사랑 이야기이다. 프루스트는 이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 나중에 화자가 겪게 될 알베르틴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심리적 열쇠를 제공한다.

멋 진 모험은 계속된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걸작을 만화로 각색한 시리즈의 다섯번째 권인 ‘스완의 사랑2’ 가 출간됐다. 승리, 각색, 매혹. 프루스트는 영원하다. 이제 프루스트는 만화작가이기도 하다.



“제가 정말 쓰고 싶었던 소설을 만화로 각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테판 외에와의 인터뷰

스테판 외에와 프루스트의 첫 만남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당시 외에는 젊은 선원이었다. 그가 탄 배가 지부티에 정박했을 때 그는 발목이 부러졌다. 외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 프루스트를 읽기 시작했다. 그는 완전히 뒤집어졌다. 프루스트란 압초를 만난 것이다!



외에는 다시 배를 탔다. 그는 십오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 또다시 유혹에 빠져들었다. 프루스트는 경이 그 자체였다. 외에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무척이나 긴” 이 소설이 이토록 감동적이고 코믹하다니! 외에는 기뻐 날뛰었다. 틈만 나면 데생을 하는 그는 소설을 읽을 때마다 장면을 눈앞에 떠올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프루스트의 소설은 성찬이었다. 소설가는 모든 것을 깨뜯어 본다. 외에도 소설가가 보는 모든 장면을 눈앞에 떠올려볼 수 있었다. 베르뒤랭 부부, 오데트가 곁에 없을 때 스완이 짓는 얼굴 표정, 오스만 남작이 새로 구획한 파리 전경, 스완의 예사롭지 않은 서재, 꽃, 흐르는 시간, 죽음까지도….

외에는 서점으로 달려갔다. 이토록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소설이라면 의당 만화로 각색된 판본이 존재하리란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럴 수가!” 프루스트의 소설을 만화로 각색한 작품은 존재하지 않았다. 외에는 작은 스케치북을 여러 권 샀다. 탕탱 만화의 찬미자인 그가 프루스트의 소설을 만화로 옮길 생각을 한 것일까.

모르겠어요. 데생을 시도해 보긴 했습니다. 소설 대목을 몇 개의 시퀀스로 구분하고, 또 장면들을 그려 보긴 했지요.

그후 그는 얼마나 많은 데생을 그렸던가. 벨 에포크의 파리 전경을 담은 사진들이며, 1900 년대에 발행된 온갖 종류의 카탈로그와 파리 지도, 오데트 드 크레시의 중국풍 가구들과 화가 엘스티르의 프로필을 완성하기 위한 데생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포르 루아얄의 작업실에서, 그는 얼마나 많은 낮과 밤을 보냈던가. 지난해 그에게 바캉스라곤 겨우 삼 일뿐이었다.



데생이 마음에 들 때는 세상을 모두 가진 듯
했습니다!

스테판 외에는 프루스트의 소설이 만화로 각
색하기에 적격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엄청
난 계획이 아닐 수 없었다. 뻘뻘하고 복잡하기
짝이 없는 이 텍스트를 과연 몇 마디 말을 곁들
인 데생들을 통해 옮길 수 있단 말인가. 텍스트
의 '신성함'을 손상시키지 않고서 어떻게 만
화로 각색할 수 있단 말인가.

외에는, 자신이 완성한 프루스트 만화본에 가
장 먼저 찬사를 보냈던 이들은 바로 세심한 프
루스트 연구자들이라고 털어놓는다. 예컨대,
일본어판 번역자는 명문대학인 가쿠슈(學習
院) 대학의 불문학 교수이다. 리우데자네이루
의 '파벨라'에 거주하는 가난한 아이들도 널리
알려진 프루스트 연구자들과 다를 바 없다.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바로 이 만화본으로 프루
스트를 공부하기 때문이다. 아이들도 화류계
여성인 오데트 드 크레시의 '우아함'에 낮이
빠지기는 마찬가지이다.

'스완의 사랑'은 문고본으로 이백이십삼 쪽
분량입니다. 반면에, 당신의 만화본은 오백십
칠 점의 데생으로 채워져 있을 뿐이지요. 원문
을 많이 잘라낸 건가요?

단 한 장면도 잘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
업에 임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만화책에
포함시킬 부분들을 골라내는 것이지요. 그러
고 나서 이 부분들을 여러 개의 시퀀스로 배
열합니다. 예컨대, 스완이 야밤에 오데트가
사는 집 창문가를 서성대는 장면을 재현하기
위해 세 쪽을 할애했습니다. 그 정도의 분량
이 필요했던 거지요.

프루스트는 원고가 인쇄되어 나온 다음에도 끊임없이 고치고 첨삭을 거듭하고, ‘종이 띠’를 덕지덕지 붙여가며 작업했습니다. 결코 끝이 있을 수 없는 작업이었죠. 요컨대 그의 소설은 식물처럼 자라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는 작업은 그 반대입니다. 요점만 제시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당신의 작업은 만화책이라는 구획된 공간 안에 갇힌 셈이죠. 이를테면 당신은 ‘종이 띠’를 활용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프루스트와는 정반대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도전이지요. 오히려 저는 이런 제약을 즐깁니다. 바로 이런 제약 때문에 더욱더 프루스트의 텍스트에 충실하고 철두철미하게 따르려 하지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의 특정 대목을 여러 시퀀스로 나누는 일이 우선적으로 행해지겠군요. 그러면 다음은, 데생입니까?

아닙니다. 데생에 착수하기에 앞서, 글을 확정하는 일이 먼저지요.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두 종류의 글입니다. 하나는 대화를 담는 말풍선이고, 다른 하나는 설명 부분입니다. 물론 두 종류의 글 모두 프루스트 소설에서 인용한 거예요. 글은 전적으로 제가 선택합니다. 다만 대화 부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읽어 보라고 해요. 의미가 분명하고 적절하게 전달되는지 알기 위해서요. 문제는 글의 분량인데, 저는 활자 크기를 가지고 장난칠 생





각은 안 해요. 예컨대, 글이 넘칠 경우에는 작은 활자를 쓰고 활자 간격을 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결코 단어를 끊어 쓰지 않습니다. 페이지와 칸, 여백에도 나름대로 존중해야 할 원칙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저는 상감 기법을 쓰는 소목장(小木匠) 같다고나 할까요. 사포질하고, 짜 맞추고, 줄질을 하면서요….

프루스트의 문장은 대단히 깁니다. 반면에 당신의 글은 매우 짧습니다. 이러한 대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대신 데생이 있습니다. 선과 색채도 무수히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오데트가 서둘러 옷 입는 장면을 구구절절 묘사할 필요는 없지요. 대신 프루스트가 제시하고 있거나 그 당시 발행된 카탈로그를 참고하여 장면을 보여주면 됩니다. 볼로뉴 숲에서 연회가 끝난 다음 스완과 오데트, 포르슈빌을

태울 마차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지요. 그 밖에, 칸의 크기도 고려해야만 합니다. 칸이 아주 작을 때도 있고, 칸 하나가 한 쪽, 아니면 두 쪽 모두를 차지할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일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컨대, 「활짝 핀 아가씨들의 그늘에서」는 발벡의 하늘과 호텔 유리창, 바람, 여백을 부각시켰지요. 반면에 ‘스완의 사랑’은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파리가 주무대이고, 밤풍경이 자주 등장하니까요. 이미지도 농밀하면서 어둡고 감잡해집니다. 소설의 문장들은 스완의 지독스런 질투심을 드러냅니다. 저는 데생의 스타일을 통해 이같은 질투심을 표현해내려 하지요. 스타일이 곧 정보니까요.

인물들은 어떻습니까?

프루스트의 묘사술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오데트며 샤를뤼스, 베르뒤랭 부인을 형상화하는 데 당시의 사진 자료들이 큰 도움이 되



었습니다. 임의적으로 형상화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요. 예컨대, 오데트가 보티첼리의 제포라를 닮았다거나, 팔랑시가 기를란다요를 닮았다든가 하는 언급의 경우가 그렇지요.

당신의 만화책에는 프루스트가 만들어냈음직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더군요. 물론 소설 속에서는 직접 마주칠 수 없는 인물들 말입니다.

아마도요. 제 만화에는 또 다른 재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까지 출간된 시리즈 권들 중의 어딘가에는 탕탱 만화에 등장하는 두 명의 뒤풍과 개 밀루가 활보합니다. 물론 엑스트라로 출연하지요. 그런가 하면 이번 권에도 대단히 전위적으로 이름난 생존 작가가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기 힘든 데생들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어떤 데생은 완성하는 데 며칠이 걸리기도 해요. 이번 권의 표지화도 여러 날에 걸쳐 완성한 겁니다. 두 시간 만에 완성한 데생들도 있어요. 한번은 호사스런 호텔을 그려야만 했지요. 그래서 칸에 있는 칼튼 호텔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제가 너무 자만했던 걸까요. 준비 중인 장면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 호텔이 팔 년 뒤에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죠. 안타깝지만 무척이나 공들였던 데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부분들은 너무나 세세해서 독자들이 미처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화에서는 무엇 하나 소홀히 다뤄

지는 법이 없더군요.

제가 나름대로 프루스트를 존중하는 방식이라고나 할까요. 제가 프루스트에게 품는 존경심은 절대적입니다. 제가 정말 쓰고 싶었던 소설을 만화로 각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프루스트를 전혀 읽지 않으셨습니다. 가끔씩 부모님 생각을 해 보곤 해요. 전 만나는 사람마다 프루스트를 읽어 보라고 권합니다. 사람들에게 프루스트의 소설을 읽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고, 프루스트의 소설이 크나큰 기쁨을 안겨 주며, 얼마든지 읽힐 수 있을 뿐 아니라 대단히 흥미롭고 무시무시하고 코믹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이 엄청난 작업을 시작하게 됐지요. 어마어마한 작업입니다. 어마어마한 행복이기도 하고요.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질 라푸주 (Gilles Lapouge)의 기록



스테판 외의의 작업 과정

어느 날, 오후에
외출한 스완은
오데트를 만나러
집으로 가고 싶었다.
그는 이제까지
이런 시각에 오데트를
방문해 본 일은
한번도 없지만,
이즈음이면
그녀가 언제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만나 보고 싶었다.

…네, 크레시 부인이
덕에 계실 겁니다.

오데트가 사는 저택의 골목길
큰 평면. 왼쪽에 샷마차가 멈춰 서 있다.
스완이 오데트의 집 정원 창살문을 민다.
전면에, 우리가 보기에 스완의 오른쪽으로,
청색 앞치마를 두른 동네 어느 집의 관리인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중인데,
쓰레기통을 끌면서 오데트의 집 앞을 지난다.

실내에서 내다보는 광경:
유리문 너머로,
정면을 향한 스완이,
원손으로(즉, 페이지
가장자리 부분)
벨을 누르는 그림자가
비친다.

스완은 무슨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발자국 소리가 아닌가
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스완이 우리 쪽을 향한다.
전면에, 거리의 모퉁이 박공.
스완이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으로,
몸을 비스듬히 틀어,
집의 회벽을 에두른다.
후면에,
샷마차가 정지해 있는데,
오데트의 집 위치를
표시한다.



스완이 닫혀 있는
오데트의 방 창문을
세게 두드린다.
창문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스완이 떠나기 위해
샷마차에 올라타기에 앞서,
샷마차의 발판에 발을
얹은 채 멈춰 서서,
의아스런 표정으로
땅바닥을 쳐다보며
뒤돌아본다.

그는 자기가 아무래도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고 착각한 게 아닐까 생각했다.

샷마차에,
스완이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정면으로 앉아 있다.
뒤편 차창 너머로,
방금 떠난 거리
가 보인다. 스완이
골똘한 표정으로,
자랑이 두구(銅鼓)에
턱을 괴고 있다.

한 시간 후, 스완은 오데트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그녀가 있었다.

…그럴 리가요, 당신이
벨을 눌렀을 때 집에 있던
했지만, 자고 있었어요.

집짓 순진한 표정을
한 오데트가
약간 놀란 기색의
스완을 상대하며

벨소리에 잠이 깨고,
당신일 거라고 생각했지요.

오데트가 입을
동그랗게 하고,
시선을 내리깔면서;

그래서 달려 나왔지만,
당신은 벌써 떠나고 없었어요.

당신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진만…



스완

천사 같은 오데트가 뒤돌아보며,
그녀의 뒤편에 있는 스완을 뒤돌아보고,
스완은 잔인한 미소를 띠면서,
눈썹을 찌푸린다.

스완은, 궁지에 몰린 거짓말쟁이가 자기가 꾸며대는 말이 사실처럼
보이게 하는 데 보탬이 된다고 자위하면서 할 수 없이 거짓말에
끼워 넣은 실제 사실의 한 조각을, 이내 간파해낼 수 있었다.

그녀는, 진실이란 것이 자기가 임의로 떼어낸 그 참사실과
인접한 디테일들이 어울릴 때야 아귀가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오데트는, 벨이 울리고, 그러고 나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고, 또 그게 나라는 걸
알고 만나려 했다고 분명 말했다.

만족감을 표시하는
스완을 클로즈업

한데 이런 말들이 그녀가 문을 열어 주지 않은
사실과는 도무지 부합하질 않아.

하지만 스완은 이런 모순을 오데트에게
지적하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녀는 혼자서 골똘해 하다가 진실과는 별 상관없는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낼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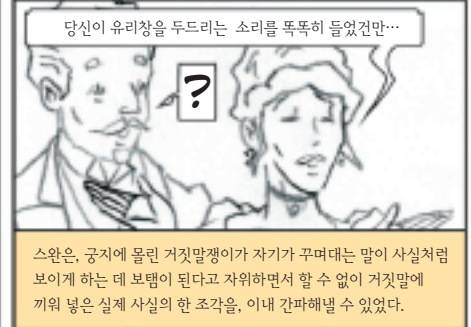
오데트와 스완이
큰 평면으로 포착한 저택 거실에 있다.
오데트가 큰 제스처와 함께 말하는 동안,
스완은 빗짐을 런 채 말없이 그녀를 뒤따른다.

스완이 오데트에게
작별인사를 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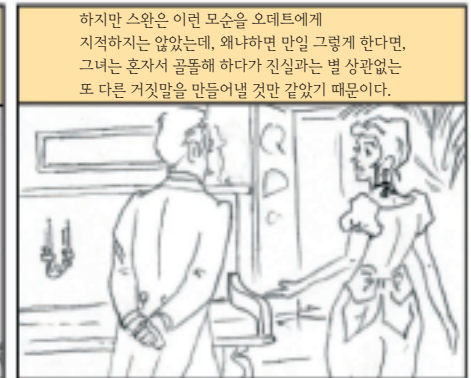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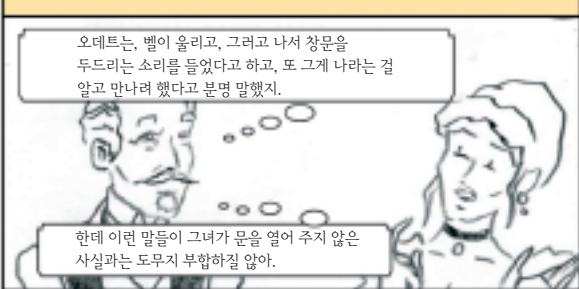
어느 날, 오후에
외출한 스완은
오테트를 만나러
집으로 가고 싶었다.
그는 이제까지
이런 시각에 오테트를
방문해 본 일은
한번도 없지만,
이즈음이면
그녀가 언제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만나 보고 싶었다.



한 시간 후, 스완은 오테트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그녀가 있었다.



그녀는, 진실이란 것이 자기가 임의로 때어낸 그 참사실과 인접한 디테일들이 어울릴 때라야 아귀가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어느 날, 오후에
외출한 스완은
오데트를 만나러
집으로 가고 싶었다.
그는 이제까지
이런 시각에 오데트를
방문해 본 일은
한번도 없지만,
이즈음이면
그녀가 언제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만나 보고 싶었다.



...네, 크레시 부인이
택에 계실 겁니다.



스완은 무슨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발자국 소리가 아닌가
했다. 하지만 문이 열린 건 없었다.



그는 자기가 아무래도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고 착각한 게 아닐까 생각했다.



한 시간 후, 스완은 오데트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그녀가 있었다.

...그럼 리가요, 당신이
벨을 눌렀을 때 집에 있긴
했지만, 자고 있었어요.



벨소리에 잠이 깨고,
당신일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달려 나왔지만,
당신은 벌써 떠나고 없었어요.



당신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건만...

?

스완은, 궁지에 몰린 거짓말쟁이가 자기가 꾸며대는 말이 사실처럼
보이게 하는 데 보탬이 된다고 자위하면서 할 수 없이 거짓말에
끼워 넣은 실제 사실의 한 조각을, 이내 간파해낼 수 있었다.



오데트는, 벨이 울리고,
그리고 나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고, 또
그게 나라는 걸 알고 만나려
했다고 분명 말했지.

한데 이런 말들이 그녀가
문을 열어 주지 않은 사실과는
도무지 부합하질 않아.



하지만 스완은 이런 모순을 오데트에게
지적하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녀는 혼자서 골몰해 하다가 진실과는 별 상관없는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낼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사랑의 기나긴 미몽(迷夢)

『스완네 집 쪽으로-스완의 사랑Ⅱ』

사랑이 찾아오는 걱정일 때, 파리를 무대로 한 벨에포크(아름다운 시절)의 음악과 그림이 함께하는 스완의 사랑이 열정적 변주곡으로 치달으면서, 전편 『스완네 집 쪽으로-스완의 사랑Ⅰ』이 끝났다. 파리 최고급 사교계를 주름잡던 그토록 학식있고 부유한 탐미주의자인 스완이, 한낱 화류계 여자인 오데트에게서 헤어지지 못한 채 광포한 질투와 의심 속에서, 어느 밤 그녀의 불 켜진 창가에서 서면서부터 후속편 『스완네 집 쪽으로-스완의 사랑Ⅱ』가 시작된다.



어느 날, 오데트가 스완을 내쫓다시피 떠나보낸 이후부터 그는 질투심과 고통이 뒤섞인 격렬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그토록 자신을 환대하던 오데트의 얼굴은 이제 포르슈빌을 비롯해 다른 남정네들에게 향해 있는 듯하다. 하지만 스완은 사교계 출입을 멈추지 않았고, 그로 인해 베르뒤랭 부부로부터 원한을 사서 ‘작은 동아리’로부터 쫓겨날 처지로 내몰린다. 그런가 하면, 오데트는 스완에게 새로운 변명거리를 늘어놓음으로써, 가뜩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타입도 아닌’ 이 여자를 놓칠까 봐 전전긍긍해 하는 스완을 더욱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뜨린다.

시간이 흐른 후, 스완은 한동안 보지 못했던 오데트를 다시 본다. 그것도 꿈속에서! 그러나 이 재회는 마지막이 된다. 그토록 사납게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목숨까지 아깝지 않던 그 사랑의 얼굴은, 이제 보니 결코 자신의 타입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 책엔 실리지 않았지만, 오랜 사랑의 미몽(迷夢)에서 깨어난 스완은 결혼을 하게 된다. 바로 스완 씨와 스완 부인이 탄생하는 순간이며, 머지않아 이 소설의 주인공이자 화자인 ‘나’ (마르셀)의 어린 시절 첫사랑인 질베르트 스완 양이 태어날 참이다. 이렇게, ‘나’의 선사시대(先史時代)에 관한 이야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마르셀 프루스트에 웬 만화? 하고 고개를 돌렸던 나를 완전히 설복시킨 만화예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방대하고 복잡 난해한 구조 앞에서 접근할 엄두를 못 내는 독자에게는 친근 소박한 입문의 기회. 숨막히도록 이어지는 서술의 미로를 따라 마침내 이 거대한 박명의 성채를 답사하고 나온 고급독자에게는 그 황홀하나 어느새 아득해진 세계를 줌 렌즈로 확 당겨 간명하게 정리해 주는 투명한 거울. 깊이있는 이해와 해석만이 개성적인 각색으로 작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음을 증명한 만화가와 각색자, 그리고 전문가의 눈으로 섬세하고 명쾌하게 텍스트를 해석하여 옮겨 준 번역자에게 경의를. □ 김화영 문학평론가

프루스트에 대한 어떤 찬사도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말의 끝, 미완성인 글쓰기의 끝까지 나아가, 언어는 불확실하고 글쓰기는 영원히 미완성이라는 사실을 끝끝내 확증한 작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그의 몸뚱아리로, 그의 전 생애에 걸쳐 파 놓은 땅굴 같은 것이며, 그 작품을 읽는 자 또한 자신의 몸뚱아리로, 자신의 전 생애에 걸쳐 파고들도록 계획된 미궁이다. 자신이 인간임을 아는 어느 누구도 프루스트의 미로를 피할 수 없다. □ 이성복 시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전 12권 중 5권 출간)

원작 마르셀 프루스트 각색 및 그림 스테판 외에 번역 정재곤

스완네 집 쪽으로-콩브레

활짝 핀 아가씨들의 그늘에서-고장의 이름: 고장Ⅰ

활짝 핀 아가씨들의 그늘에서-고장의 이름: 고장Ⅱ

스완네 집 쪽으로-스완의 사랑Ⅰ

스완네 집 쪽으로-스완의 사랑Ⅱ

A4/양장/각권 48-80면/각권 값 15,000 원

열화당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20-10 파주출판도시 전화 (031)955-7000, 팩시밀리 (031)955-7010
www.youlhwadang.co.kr yhdp@youlhwadang.co.kr